

<원광대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팀장>

# 김옥진, 곤충의 심리치료 효과 규명

## 아동 · 노인 대상 프로그램 적용...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12월호에 게재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 교수 연구팀(사진)이 아동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곤충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치유 곤충의 심리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



했다. 김옥진 교수 연구팀은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행된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곤충분야)' 컨설팅 사업 과제를 맡아 시흥시 곤충산업연구회와 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효과 규명 연구를 통해 아동과 노인 대상자에 특화된 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근까지 2개월여 동안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5명과 우울 점수가 높은 독거노인 8명

을 대상으로 각각의 군에 적용한 뒤 그 변화를 데이터로 측정했다. 연구결과 아동 대상자들은 생명존중의식 및 인성 향상,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정서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노인 대상자들은 우울 감소와 자아 존중감 증가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문 학술지인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2017년 12월호에 게재됐으며, 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과 효

능의 과학적 검증을 도움받아 치유농업 분야에 큰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곤충 활용 치유모델 개발, 적용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연구 결과가 곤충산업의 패러다임을 치유농업 분야로 전환하고, 치유 곤충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지침 제시와 실무자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 후계 · 청년농 영농정착금 신청자 모집

군산시,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군산시는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지역은 만 50세 미만(1967.1.1.~2000.12.31.)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농지구입, 영농, 축산시설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

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 80~1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kr)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인창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지원 제도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농업인실용교육' 마련

익산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마련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교육을 위한 별도 자원은 없으며 농업인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교육일정에 맞춰 현장에서 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매년 초 농한기를 이용해 추진됐으며 올해는 농산물 생산기술과 농업 경영·회계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교육은 총3개분야 8개과목으로 고추, 논콩, 친환경의 기술보급분야, 쌀가공, 6차산업의 농촌자원분야, 농업경영, 농업회계의 경영분야 등의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교육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정도 편성돼 있으며, 참석자에 한해 교재를 배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필요 시 교육확인서를 발급한다. 특히 올해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PLS(농약허용물질 목록화제도)에 대한 교육을 모든 과정에 필수 편성해 강화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대책을 공유하고, 당면한 지역 영농문제를 해소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왕원 기자

#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접수... 곤충·양봉 등 5개반 150명

익산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익산 농업인 대학에서 2018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익산시(시장 정현욱)에 따르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익산 농업인대학이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과목은 5개반으로 모집인원은 150명이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농산물가공 40명, 곤충산업 30명, 양봉산업 40명, e-비즈니스 초급 20명, e-비즈니스 고급 20명으로, 오는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학과별 재배기술에서 유통, 가공의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 토의, 체험 견학 등 종합교육 과정으로 편성된다. 익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영농규모를 갖춘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ksan.gok.kr/fam)에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오는 1월 8일



익산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익산 농업인 대학에서 2018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익산시청

부터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월 20일 개별 통보하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익산 농업인대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농촌지원과(☎8859-4946)로 하면 된다. 한편 익산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

년에 시작해 2017년까지 97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2017년 전국 농업인대학 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농업CEO 배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은 지역농업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 군산 대야면, 우수부서 포상금 대입 예정자에 기탁

2017년 군산시 국가상징 선양 유공 우수부서로 선정된 대야면이 포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을 관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중 2018년도 대학입학 예정자 2명에게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지난해 대야면은 전통시장 주변, 탑전 소공원과 관내 초등학교 앞 마을

입구 등에 무공해단지를 조성하고 국경일마다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국가장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상징 선양 유공 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다. 두양수 변장은 "비록 소액이지만,

대학 입학 시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청년들에게 애환심이 심어지기를 기대하며, 대야면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라사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야면에서는 이웃돕기운동이 이어졌으며, 대야면의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은 1,37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시민정보화 교육 무료 실시

군산시가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민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교육과정은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이미지편집, 동영상상자작도구활용, 디지털생활, 스마트 폰활용 등 9개 과정으로 48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은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1주에서 4주 과정으로 마련되어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매회 교육과정마다 시민들에게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장소는 군산시청 8층 전산교육장과 수송동 시립도서관 4층 전산교육장 총 2개소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다. 한대진 정보통신담당관은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의식 등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신청 접수는 시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edu.gunsan.gok.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정보통신담당관 ☎ 454-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장애인일자리 발대식 열어

군산시는 지난 5일 장애인연합회에서 개최한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발굴을 통한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중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일자리 39명, 시간제 12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76명, 특화형 인마사 6명 등 총 133명을 최종 선발했으

며, 이들은 1년 동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발대식 및 자체교육을 통해,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요령, 사업규정 안내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법 등 기본 소양교육 등을 수료한 후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재활과 자립이 가능할 때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온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Dream 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